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0호 [루계 제25393호] 주체105(2016)년 9월 6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리만건동지, 리병철동지, 김정식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일군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또다시 모시고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게 된 화성포병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들을 걸고들면서 함부로 입부리를 놀려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섬멸적인 핵불소나기를 들씌우고 승전포성을 높이 울릴 전투적의지에 충만되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대장 김락겸동지, 정치위원 전략군중장 박영래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훈련에는 유사시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발사훈련은 실전배비한 성능개량된 탄도로케트의 비행안전성과 유도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화성포병부대들의 실전능력을 판정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사장에 도착하시여 탄도로케트발사훈련계획과 성능개량된 탄도로케트들의 전술기술적제원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전략군사령관에게 발사훈련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김락겸대장의 화력타격개시구령이 떨어지자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원수격멸의 세찬 불줄기를 토하며 탄도로케트들이 련발적으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자랑찬 비행운을 새기며 푸른 하늘을 가득 메웠다.

훈련에서는 화성포병부대의 로케트실전운영능력과 탄도로케트들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한것으로 평가되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는 강력한 군종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군사적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탄도로케트련발발사훈련이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전략군 화성포병들을 뜨겁게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뢰성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력사적인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강화의 기적적성과들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주체적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군사적억제력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전국계획일군열성자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로작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절박한 요구이다》 전달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계획일군열성자회의가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이번 회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인민경제계획화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회의에서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인민경제계획화정책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을 분석총화하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경제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관철과 당면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경제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계획화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회의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회의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완성해나가자!》,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철저히 보장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전국계획일군열성자회의》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박봉주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노광철동지와 리무영, 고인호 내각부총리들,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도, 시, 군,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책임일군들, 전국의 모범적인 계획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회의는 시작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5(2016)년 9월 3일에 발표하신 력사적로작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절박한 요구이다》**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수용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로작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며 경제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인민경제계획화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전국계획일군열성자회의를 마련해주시였으며 경제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이 언제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로작을 발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세기적변혁을 안아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귀중한 경험에 토대하여 1946년 3월 6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국가계획기관을 창립하여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의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4(1965)년 9월 23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를 발표하시고 우리 식의 계획화사업의 체계와 방법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새로운 계획작성방법도 밝혀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계획태조와 군중토의방법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을뿐아니라 인민경제계획이 인민의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계획화사상과 리론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철저히 고수하도록 하시였으며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문제를 옳게 해결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가계획기관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위력한 수단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창조와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획화사업이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일관하게 관철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였으며 계획화사업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더욱 목적지향성있게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나라의 경제작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계획일군들에게 온갖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계획화사상과 리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에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일군들은 계획화사업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국방력강화를 위한 계획화사업에 힘을 넣어 불패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는데 이바지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고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들은 위력한 전투대오로 강화되였다.

계획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믿음직한 경제작전일군들로 자라났다.

보고자는 인민경제계획화의 초행길을 개척하시고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강화하고 모든 부문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계획일군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획화사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원수님의 말씀과 명령,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며 당면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화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병진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대한 계획화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계획일군들이 지식경제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당의 계획화정책과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실천가가 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이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과장 황철웅,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과장 리선영,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지구계획위원회 위원장 문철, 순천화력발전소 과장 황정철,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윤광옥,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과장 김영국, 안주뽐프공장 과장 엄경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김광남,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부원 리원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과장 김형순, 라선해성옷공장 지배인 채정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부원 서영호, 2.8비날론련합기업소 지배인 장명학, 평천고려약공장 지배인 문순옥, 청진시 신암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성준, 전력공업성 1부상 김영철, 상농광산 과장 조재근,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전경선, 학천수산사업소 지배인 로광남,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체신성 기술경제기준제정소 실장 리철민, 해주련결농기계공장 지배인 우광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과장 리승기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밝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로작을 받아안은 커다란 감격과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왔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의 계획화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였으며 충정의 70일전투계획을 넘넘히 끝내고 전형단위의 영예를 떨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계획화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늘 현실속에 들어가 창발적의견들을 종합하여 계획을 세웠으며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사업도 더욱 짜고들었다고 말하였다.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벌려오는 과정에 자강력이야말로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보검이며 모든 사업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만능의 열쇠라는것을 심장에 새기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국가의 계획적지도관리원칙을 틀어쥐고 계획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높은 생산성과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경제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경제계획화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비상한 각오와 전인불발의 의지로 계획화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창조와 변혁으로 빛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온 세상에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회의는 끝났다.

평양에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진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주최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의 참가하에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9월 8일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열리게 될 토론회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며 반제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이슬란드, 뽈스까에서 8월 30일과 31일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집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의 기치높이 백승만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집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이슬란드에 있는 조선의 벗들은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다.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달려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였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뽈스까인민군전통협회 명예위원장 등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찬하면서 조선의 사회주의야말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진정한 사회주의이라고 언급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메히꼬 네싸우알꼬요틀시에서 1일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집회에는 메히꼬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메히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베니그노 곤쌀레스 빌라씨나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의 사회주의를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적대세력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는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영웅청년대군을 키우시던 나날에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

주체101(2012)년 초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화답하여 피끓는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섰다.

청년들이 안일과 향락, 부패와 타락에 빠져 사회의 우환거리로 된 나라들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세상에 없는 위대한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가 이런 훌륭한 청년들의 대부대를 키운것이다.

그로부터 며칠후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청년절을 크게 쇠도록 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 김일성민족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이다. …

청년중시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는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적들이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친듯이 날뛰는 준엄한 시기에 청년절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시여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것이다.

미덕과 미풍을 불씨로

지난해 5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는 어려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한 처녀도 참가하였다.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미덕의 주인공은 20살 꽃나이였다.

토론자들중에서도 제일 나이어린 그가 영광의 대회와 더불어 《처녀어머니》라는 희한한 부름으로 우리 시대 청년미풍선구자들의 제일 앞자리에 떠받들리우게 될줄 어이 알았으랴.

대회가 끝난 후 기념사진촬영에 앞서 모범적인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7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정성껏 키우고있는 장정화동무의 소행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였다.

《처녀어머니》라는 말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생겨날수 있다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을 상상도 하지 못할것이라고…

우리 나라에만 있는 《처녀어머니》!

비옥한 대지에서 알찬 열매가 맺히듯이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자양분으로 하여 성장한 이 나라 청년들만이 발휘할수 있는 미덕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처녀어머니》 장정화를 비롯한 청년미풍선구자들의 미덕과 미풍을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긍정창조의 불길은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꽃송이들은 더욱 만발하고있다.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를 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찾으신 지난 4월 어느날이였다.

한 청년일군이 모두의 심정을 담아 경애하는 그이께 우리 돌격대원들은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를 든다는 신념을 안고 창조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드리였을 때였다.

영웅청년, 그 이름으로 빛나는 백두청춘들만이 아닌 이 나라 수백만 청년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올리는 그의 이야기를 정깊이 들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하를 드르릉 울리며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나는 그 지구를 계속 돌리겠소!

청년중시의 원대한 뜻이 빛발쳐오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퍼질 때 일군들모두의 가슴가슴은 서두수의 푸른 물결과 같이, 백두대지의 천연수림과도 같이 끝없이 설레였다.

우리 혁명의 억만년뿌리가 내린 백두산에서 이 나라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창조의 거인으로 억세게 키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변의 의지를 새겨안는 력사의 순간이였다.

참으로 그날은 우리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세계를 움직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그이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신념으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이 나라 청춘들사이에 열화같은 정이 굽이쳐흐른 잊지 못할 날이였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린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만리마속도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중앙의 예술단체들과 예술선전대 경제선동 활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떨쳐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고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솟아오르는 려명거리건설장에 시대를 진감하는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진군나팔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8월 31일현재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국립연극단, 국립교예단을 비롯한 중앙의 예술단체들과 수도건설위원회예술선전대, 철도예술선전대 등 예술선전대의 예술인들이 려명거리건설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연 44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260여회의 경제선동을 진행하였다. 9월 1일부터는 전국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의 방송선동경연과 함께 예술선전대경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려명거리건설착공의 장엄한 선언과 함께 울려퍼진 장쾌한 노래포성은 우리 당의 굴할줄 모르는 공격사상으로 최후승리를 향해 돌격해나가는 건설자들의 전투적열의를 백배해주는 장쾌한 승전고인 동시에 사상전선의 제일기수로서 혁명의 북소리높이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해갈 문학예술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불타는 혁명적열의와 투쟁기풍의 과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대활동을 강화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투장들이 언제나 혁명적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을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경제선동대활동은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배합하여 생산현장에서 선전선동활동을 기동적으로, 전격적으로 벌림으로써 최상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정치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를 올해중에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밝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중앙예술경제선전대와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를 비롯한 중앙의 예술단체들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는 려명거리건설장으로 달려나가 기동적인 현장공연을 힘있게 벌려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날에날마다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시대의 벅찬 숨결이 맥박치고 호소성과 전투성이 강한 공연들이 펼쳐지는 전투장들은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높이 울리던 1970년대의 대고조전투장들을 방불케 하였다.

이런 속에 9월 1일부터 전국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의 방송선동경연과 함께 예술선전대경연이 진행되여 려명거리건설장의 전투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중앙예술경제선전대와 수도건설위원회예술선전대, 철도예술선전대와 각 도예술선전대들을 비롯하여 10여개 단체가 참가한 이번 예술선전대경연은 려명거리건설에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기 위한 집중경제선동을 첨입식으로 벌려 건설을 기한전에 끝내고 백두산대국의 기상과 위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문화성의 일군들은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천만군민이 일떠선것만큼 혁명이 전진한다는 철리를 심장에 새겨안고 경연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나갔다.

문철남, 김인철, 최동호동무를 비롯한 문화성의 일군들은 출근길선동과 직관선동을 비롯한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여러가지 경제선동형식들을 적극 살리는 한편 경제선동을 건설현장에 부단히 접근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예술선전대들에서는 방송선동과 결합된 예술선동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면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드세찬 선전공세를 들이댔다.

황해북도예술선전대와 함경남도예술선전대를 비롯한 예술선전대원들은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는것과 함께 종전의 무대공연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러명씩 조를 무어가지고 마지막전투현장에까지 직접 들어가 전투원들과 함께 작업도 같이하며 그들의 사기를 적극 북돋아주는 경제선동활동을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벌려나갔다.

려명거리건설장을 들었다놓으며 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울려가는 힘있는 화선식경제선동의 세찬 열풍은 전투장마다에 새로운 천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던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게 하고있으며 날마다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낳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예술선전대들의 경제선동활동이 진행된 전투장들마다에서 최후승리의 려명을 앞당겨오는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한 공연, 건설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힘있는 경제선동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예술선전대경연이 시작되여 3일동안만 하여도 인민보안성려단을 비롯한 30여개의 시공단위들에서 연 5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220여회에 걸치는 경제선동공연이 진행되였다.

날에날마다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며 들끓는 려명거리건설장의 곳곳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경제선동의 힘있는 북소리, 투쟁의 나팔소리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발악을 무자비하게 짓부시며 새로운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시대의 진군가로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민

200일전투성과 계속 확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200일전투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있다.

전력, 석탄, 건재공업부문과 도안의 중요대상공사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을 맡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대동력기지에 보낼 감속기생산을 60%계선에서 다그치고있다. 중요대상에 보낼 대형권양기의 덩지큰 부분품과 900개의 콘베아굴개, 30대의 소성로대차는 완성조립단계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70일전투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200일전투의 불길드높이 련속적인 공격전에 진입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두가 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새형의 기계제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하던 그날의 투쟁정신과 본때로 살며 일하도록 첨입식정치사상공세를 들이대였다.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격동적인 구호들과 전투속보판들이 곳곳에 전개되고 방송선전차에서는 생산적앙양에로 고무추동하는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소재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근 100t의 파철을 모아들이고 수십리 떨어진 주변의 산에 올라 함마전으로 많은 량의 형석을 해결하였다.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적지 않은 량의 크링카를 해결한 소재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교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고 과감한 공격전으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소재보장이 앞서나가니 가공공정과 조립공정들에서 생산의 동음이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제관기, 권양기, 마광기, 콘베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그 어느때보다 짜고들면서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어 부속품가공과 조립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하였다. 매일 맡겨진 계획의 100%는 성차지 않아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 수행하면서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화선지휘관들처럼 로동자들과 고락을 나누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참모부서의 일군들은 공정간 맞물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면서 새 기술들을 적극 개발도입하여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공장의 기술자들이 200일전투성과를 확대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그들은 당정책을 심장에 새기고 기술문헌자료들을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절삭공구의 수명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내놓아 각종 기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3종에 75개에 달하는 측정장치들을 자체로 만들어 제품의 생산성과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으며 대형선반에 만능연마지구를 받아들이고 대형원통가공방법을 개선한것을 비롯하여 17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더욱 기세를 올리며 200일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그들의 힘찬 투쟁으로 소재부문에서는 쇠물폭포가 장쾌하게 쏟아지고 가공, 조립현장들에서는 생산의 우렁찬 동음이 날을 따라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항비루스작용이 뚜렷한 고려약 개발

충정의 200일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가운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고려의학발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과시하는 훌륭한 과학기술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의 의료일군들이 항비루스작용이 뚜렷한 우리 식의 고려약을 개발한것이다. 새로 개발된 항비루스제는 우리 나라에 흔한 약재들을 리용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효능높은 고려약이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급성호흡기비루스성전염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항비루스제가 개발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는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치료사업에 널리 리용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루스성질병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전인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지카비루스, 에볼라비루스를 비롯한 각종 비루스들에 의한 피해가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고있으며 그로 하여 세계는 커다란 인적, 물적손실을 입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비루스감염을 미리막거나 치료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맹렬하게 벌리고있으며 항비루스제들을 비롯한 치료약들을 적극 개발도입하고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진 항비루스제의 제조방법은 주로 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이였으며 그것도 특종의 비루스들만을 목표로 하고있었다.

이번에 우리의 의료일군들이 개발한 새로운 항비루스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화학적인 제조방법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흔한 약재들을 원료로 하여 100% 우리 식으로 만든 효능높은 천연항비루스제이다.

우리 나라에 흔한 약재를 가지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고려약들을 많이 만들어 리용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선교구역 남신종합진료소 의사 장미란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 국가미생물검정소의 과학자, 전문가들과 협동하여 고려약형태의 광폭항비루스제를 개발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왔다. 이들은 수십차례의 실험과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연구사업을 다그쳐왔다.

보건성과 선교구역의 일군들도 연구사업에 유리한 조건들을 보장해주며 하루빨리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항비루스제가 개발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수년간에 걸치는 연구사업과정에 의료일군들은 마침내 비루스종에 관계없이 홍역이나 돌림감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루스성전염병을 예방할수 있을뿐아니라 비루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각이한 비루스복제과정을 중지시키고 비루스의 증식을 억제할수 있는 새로운 항비루스제인 《우웡항비루스물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여러 의학과학연구기관들과 치료예방단위들에서 이 항비루스물약을 환자치료에 도입한 결과 한결같이 강한 항비루스작용과 함께 부작용이 거의나 없다는것이 증명되였다. 이 항비루스물약의 치료효률은 90%이상에 달하며 종전의 항비루스약들에 비하여 치료효과가 대단히 높고 원가가 눅으며 치료기일이 짧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호흡기성전염병치료를 위한 약물개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속에 치료효과가 뚜렷한 고려약을 개발한것은 전염병치료약물개발에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성과로 되며 우리 나라 고려약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항비루스제가 개발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보호사업에서는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으며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갈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지금 보건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호흡기성전염병들에 대하여 뚜렷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우웡항비루스물약》을 수요에 맞게 생산보장하며 보다 효능높은 고려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우리 식의 아류산가스농도측정장치 제작도입

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자원을 보호증식시키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최근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 나라의 대기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아류산가스농도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장치는 대기속의 아류산가스농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는 성능높은 장치이다. 우리 식의 아류산가스농도측정장치가 개발됨으로써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여러가지 질병을 발생시키는 근원인 공해를 방지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대기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아류산가스는 화석연료가 탈 때 생기는 유해가스로서 사람들의 건강과 대기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것으로 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대기환경에 대한 실시간 감시의 첫째가는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는 대기속의 아류산가스농도를 실시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장치개발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아류산가스농도측정장치를 수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장치의 측정정확도가 높지 못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며 외부전원의 영향을 받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아류산가스농도측정장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료해분석한데 기초하여 설계된것으로서 측정정확도가 높으면서도 값이 눅고 우리의 실정에도 맞아 도입단위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환경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성능이 높은 아류산가스농도측정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 과정에 실장들인 리성일, 박주성동무를 비롯한 환경분석연구집단과 환경기술교류실의 과학자들은 장치의 측정정확도를 높이고 원가를 낮추면서도 전력소비를 대폭 줄이고 외부전원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다른 나라들에서 개발된 측정장치에 비하여 측정정확도는 20%정도 높고 원가는 훨씬 낮을뿐아니라 전력소비도 1/20로 줄어든 우리 식의 아류산가스농도측정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원장 김영권동무를 비롯한 환경과학기술연구원의 일군들은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적극적인 협조밑에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주요환경감시초소들에 아류산가스농도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운영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노력에 의하여 현재 중앙과 지방의 주요환경감시초소들에 설치된 아류산가스농도측정장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여 대기환경보호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정책대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해나갈 때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도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본사기자 림명희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조선녀성》잡지창간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녀성》잡지창간 70돐기념보고회가 5일에 진행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근로단체출판사 기자, 편집원들, 녀맹일군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선일 근로단체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녀성들과 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은 《조선녀성》잡지를 창간해주시고 700호발행에 이르는 지난 70년간 잡지가 자기의 사명을 수행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해방후 녀성들을 위한 출판물을 발간하도록 하시고 몸소 《조선녀성》이라고 잡지이름도 달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주체35(1946)년 9월 6일 잡지의 첫호가 세상에 나오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잡지의 자랑찬 발전로정에는 창간 첫 시기부터 녀성들을 위한 출판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사랑도 깃들어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잡지가 녀맹중앙위원회기관지로서의 특성을 옳게 살려나가도록 편집내용과 형식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적녀성출판물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녀성》잡지는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잡지를 편집발행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주시고 기자, 편집원들이 당정책의 충직한 대변자, 견결한 옹호자, 힘있는 선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 잡지 《조선녀성》이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조선녀성운동의 강화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적무기, 우리 녀성들의 친근한 길동무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올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출판보도물들은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오늘 기자, 편집원들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로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출판보도선전을 더욱 강화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녀성》잡지가 모든 녀맹원들과 녀성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녀성동맹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참다운 선전자, 교양자, 길동무가 되게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혁명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명작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의 참된 문필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룡양광산 포거농목장 2중3대혁명붉은기 농산제9작업반 당세포에서

돌밭이나 다름없는 비탈밭들, 언제 사람손이 가보았는지 모를 한심한 살림집들과 생산건물들…

고난의 시기 포거농목장 농산제9작업반의 실태는 참으로 한심하였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정신상태였다. 생활상곤난을 겪어서인지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있었고 성격도 이지러져있었다. 출근률은 말할것도 없었다.

농사도 사람이 짓고 마을도 사람이 꾸린다. 우선 사람들을 묶어세우자!

이것이 그때 당세포가 내린 결심이였고 세포사업의 종자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초급일군이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작업반이 시대의 요구와 너무도 거리가 멀게 뒤떨어져있던 그때 리성만동무가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여왔다.

새로 온 작업반장이 가정방문을 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쫙 퍼졌다. 일 안나오는 자기들을 추궁할줄 알았는데 찾아와서 식구는 몇이고 로력자는 몇인가, 아침에는 뭘 먹었는가고 다정히 물으며 가마뚜껑까지 열어보니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어렵다고 맥을 놓으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재부도 우리 손들에서 나오고 보금자리도 우리 손에서 마련된다고 절절하게 말하며 식량이 떨어진 집에는 얼마 안되는 제 집 강냉이도 퍼다주고 무너진 울타리수리도 조직해주는 작업반장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가닿기 시작하였다.

초급일군들은 한몫으로 농사차비를 하면서 살림집과 생산건물건설에 달라붙었다. 목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를 수백리밖에서 날라다 건설하자니 힘에 겨웠다. 그보다는 성격, 취미도 다르고 맥을 놓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하나로 일으켜세우는것이 더 어려웠다.

당세포는 그 방도를 작업반원들에 대한 사랑과 초급일군들의 이신작칙에서 찾았다.

6분조에 안해를 잃고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김동무가 있었다. 당세포위원장은 작업반장과 토의하고 당원협의회를 열었다. 물론 다들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당원들이 앞장에서 어려운 세대들을 돕고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가자는 초급일군의 호소에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당원들의 진심이 어린 물자들을 받아안으며 김동무는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말밥에 오르면 한 축산분조원은 딸의 전망문제까지 헤아려주는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진정에 이끌려 새 사람이 되였으며 이 고장을 떠나려던 정동무는 가정을 이루어주고 자기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기울여주는 다심한 정에 끌려 인적드문 산골에 마음의 깃을 내렸다.

낮에는 자기들과 꼭같이 돌추어내기며 김매기를 하고 밤에는 살림집건설장에서 꼬박 밤을 패는 초급일군들, 어느 집에 환자가 생기면 혈육보다 먼저 등에 업고 수십리 떨어진 진료소로 달려가는 그 인정미에 사람들은 감동되였다. 자기들을 위해 진정을 바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는 초급일군들을 따라 사람들은 더 좋은 래일을 그려보며 제손으로 건설도 하고 지가 나도록 돌을 추어내면서 비탈밭을 가꾸어나갔다.

한해두해 농사가 잘되고 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안착되여갔다. 제손으로 일떠세운 식료가공실과 실리있게 건설한 남새온실이며 버섯생산기지, 축사의 덕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후더워졌다.

그럴수록 초급일군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작업반원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더 각근히 보살펴주었다. 그 실례는 많다. 결혼식을 하는 집에 물자들을 어김없이 보장해준 사실, 민속명절이면 료리경연, 부부윷놀이경기를 조직하여 작업반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집단의 화목을 도모한 사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해마다 여름철이면 가족들까지 차에 태워 해수욕을 조직한 사실…

그러자니 초급일군들의 머리속에서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작전과 함께 작업반원들의 건강과 편의보장을 위한 걱정이 어느 한순간도 떠날줄 몰랐다. 남보다 잠도 적게 자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헌신하여야 하였다.

초급일군들의 이런 사업기풍은 작업반을 전투력있는 단위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었다.

어느해 이삭비료주는 시기였다. 큰물로 파괴된 도로가 복구되기를 앉아 기다릴수가 없어 작업반장은 무작정 평천까지 70리길을 걸어나갔다. 그곳 일군들의 도움으로 차를 해결하여 비료를 싣고 동암동에 이른것은 깊은 밤이였다. 도로가 파괴되여 더이상 갈수 없어 차에서 내리던 작업반장은 뜻밖의 광경에 한동안 굳어져버렸다. 홰불을 켜든 당세포위원장 김순남동무를 선두로 작업반원들이 마중나온것이 아닌가.

그밤 비료마대를 싣고 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힘든줄 몰랐고 더 좋을 래일에 대한 희망안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난해 작업반은 정보당 수확고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뜻과 정으로 뭉친 집단앞에 못해낼 일, 점령 못할 요새란 없었다. 애써 건설하였던 분조창고들과 집짐승우리들이 큰물에 모조리 떠내려간 몇해전 가을에도 작업반원들은 하나로 뭉친 힘, 집단주의위력으로 보름동안에 더 멋지게 일떠세웠다.

농업과학기술선전실과 탈곡장, 축사와 분조창고들, 버섯생산기지와 남새온실을 훌륭히 건설하고 해마다 계획적으로 3~5동씩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니 최근 10년동안에 작업반의 면모는 완전히 일신되였다.

농사에서도 마을꾸리기에서도 체육경기에서도 예술소조경연에서도 작업반은 단연 1등이다. 온 농목장이 부러워하는 작업반에 자랑이 또 늘었다. 지난해 30명의 작업반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것이다.

《믿음과 정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정신력을 발동시킨것, 바로 이것이 뒤떨어졌던 우리 작업반이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된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당세포위원장의 말이였다.

본사기자 김향란

인민의 행복 꽃펴날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되고있는 세포등판

경쟁열풍으로 안아온 비약적인 성과

평강군사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강군사단에서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충정의 200일전투기간 이천군에 건설하기로 되였던 수십동의 살림집과 집짐승우리건축공사를 앞당겨 완공하였다.

그들이 이번에 70일전투때의 몇배에 달하는 방대한 공사를 앞당겨 끝낸것은 전례없는 기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선 편리, 선 미학성의 원칙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사단에서는 이번 대상건설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해야 하는것만큼 전투지휘에서 신속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에 강력한 분지휘부를 꾸렸다.

분지휘부의 일군들이 현지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건설대상중에는 집짐승우리와 같이 덩지큰 건물들이 많은데다가 건설지역들이 대체로 산골이여서 물동운반이 불리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해동안 세포등판에서의 건설과정에 담력과 배짱이 커진 이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무조건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느 려단이나 로력과 기계수단이 긴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당정책관철에서 가능, 불가능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달라붙을 때 반드시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무엇보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을 보다 실속있게 벌리는데 힘을 넣었다.

우리 당이 발기한 이 대중운동이야말로 온갖 불가능성을 극복하고 만리마속도로 대비약, 대혁신을 창조하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라는것을 이미 70일전투과정에 절리로 새겨안았기 때문이였다.

대중운동의 불길이 높이 타오르게 하는데서 이들이 중시한 문제는 전형단위를 바로 선정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이전에 전형으로 되였던 단위들을 더듬어보았다. 무슨 일에서나 언제나 앞장서는 단위들이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여주기사업도 자주 조직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같은 방식을 되풀이한다면 그 단위에 대해 잘 아는 다른 단위 일군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할수 있었다.

이로부터 분지휘부일군들은 함경북도려단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이 려단은 지난 시기 앞선 단위로 꼽히지 못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충정의 200일전투에서는 오직 결사관철 하나밖에 몰라야 한다는 신념을 안고 불사신이 되여 총결사전을 벌려 끝내 앞선 단위의 대렬에 들어섰다.

일군들은 이 려단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좋았다. 우선 모든 참가자들에게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을 북돋아주었으며 전형단위를 따라앞서고 따라배우려는 의욕이 더욱 솟구쳐오르게 했다. 특히 이미 앞섰던 단위들에서 자만하지 않고 보다 분발해나서게 하는데 의의가 컸다.

실효가 큰 보여주기사업을 계기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려단들사이 경쟁열의가 날로 높아졌다.

일군들은 여기에 맞게 기본건물과 보조건물건설, 지대정리등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립체전을 벌려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작전을 실속있게 하였다.

립체전을 벌려 공사완공기일을 앞당기자면 시간과 로력을 최대로 절약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 중요했다.

그로부터 일군들은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들은 립체전작전을 하면서 건설의 매 공정들을 혁신적인 안목으로 다시금 따져보았다. 그 과정에 버팀대를 세우는 방법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종전에는 층막치기를 할 때 뒤틀을 받쳐주는 버팀대를 촘촘히 세웠다. 층막이 굳을 동안 그것을 해체하지 못하다보니 그 사이에 벽체미장을 할수 없었다.

그런데 일군들이 현장에서 면밀히 타산해본데 의하면 버팀대를 더 넓게 세워도 얼마든지 층막치기를 할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돌격대원들이 그 사이를 오가면서 벽체미장을 할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였다. 결국에는 립체전의 요구에 맞게 두개의 공정을 큰 시공간적차이가 없이 다같이 밀고나가도록 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로력의 긴장성을 푸는 문제에도 주의를 돌렸다.

언제인가 현장을 돌아보던 한 일군은 몇명의 돌격대원들이 모래를 치는 작업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도구준비와 리용을 잘하면 한명이 능히 할수 있는 작업이였다. 별로 크지 않은 문제였지만 시사해주는 점이 있었다. 로력조직에서 공간을 없애야 한다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이 사실을 놓고 려단들에서 립체전을 한다고 하여 무작정 로력을 보충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있는 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적극 찾도록 하였다.

현대적혁신의 불길높이 어려운 단위들을 불러일으켜 제일 어려운 지역에 있는 황해북도려단의 전투장에 대한 자재집중수송을 조직한 사실, 가능성이 생기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해당 단위들에 내려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으로 그들을 증산투쟁에로 고무추동하면서 필요한 자재와 설비해결을 선행시킨 사실…

당의 뜻대로 대중운동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주도적이며 창발적인 작전을 련속 펼친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방대한 건축공사를 앞당겨 완공하는 기적이 창조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식의 수의방역약 도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만든 우리의것이 제일이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확증해주는 또 하나의 과학연구성과가 세포등판에 도입되고있다.

평성수의축산대학 박성, 곽경식동무들이 주체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피타는 사색과 노력을 바쳐 연구한 버짐과 같은 집짐승피부병치료약이 축산물생산단위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조제풀비껜이라고 하는 이 수의방역약은 강냉이가루와 쌀겨나 콩깨묵과 같은것을 기본원료로 하여 만든다. 이것들을 일정한 비률로 배합한 다음 고압멸균기에서 쪄낸다. 여기에 균을 접종하여 3～4일간 배양을 하고 일정한 기간 낮은 온도처리를 하여 항생소가 많이 생겨나도록 한다. 이렇게 항생소가 생겨난 배양물을 말리워 가루낸것이 바로 조제풀비껜이다. 그것을 집짐승의 먹이에 섞거나 물에 타서 약을 만들어 리용한다.

이 약을 집짐승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피부병치료를 하는데 그 조제를 축산물생산현지에서 할수 있고 종전보다 약리용방법이 쉬워 좋은 반영이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집짐승피부병치료는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집짐승이 이 병에 걸리면 털이 빠지고 여위면서 잘 자라지 못하다가 폐사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병이 관리공을 비롯한 사람들에게도 전염될수 있다는데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시기 농촌들에서는 이 병이 발생하면 소인 경우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놓고 지방에 흔한 물질로 약을 만들어 발라주었으며 딱지가 앉으면 뜯어주는 방법으로 치료했다. 이 방법은 여러명의 로력을 요구하는데다가 집짐승의 체내에서 스트레스현상도 일으켜 결국에는 축산물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는것이였다. 또한 병이 재발하는 현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 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약이 없어 수입해야 했다.

세포등판에 나온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이 깊었다. 현실에 깊이 들어가볼수록 당의 국산화방침의 정당성을 더더욱 뼈에 새기게 되였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으로 가슴 불태우며 이들은 우리 식의 수의방역약연구에 달라붙었다. 전문생산기지가 없는 현장에서 필요한 약을 연구조제하자니 전기와 설비조건이 불리한것을 비롯하여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이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오늘날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창조할 때 부강조국건설의 기관사, 기마수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신념을 심장에 쪼아박고 낮에 밤을 이어 자력자강의 강행군길을 굽힘없이 다그쳤다. 결과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들이 현지에서 시험과정에 대비해본데 의하면 우리 식으로 연구한 조제풀비껜이 수입약에 비해 생산원가가 몇배나 눅다는것이 확증되였다. 또한 집짐승에게서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서도 효과가 컸다.

우리 식, 우리의것은 이렇게 좋다.

이 신념을 다시금 깊이 새긴 과학자들은 수십kg의 조제풀비껜과 그 연고를 생산하여 여러 축산물생산단위들에서 리용하게 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충정의 20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먹이풀수확에서 최고기록

평양시려단 중구역대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는 해발높이가 각이하고 지형이 복잡하며 기후의 차이가 심하므로 먹이풀과 먹이작물배치를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잘하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비배관리방법을 완성하여 그 생산량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평양시려단 중구역대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인공풀판에서의 1, 2차먹이풀수확에서 최고기록 돌파!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들을 찾았을 때 대대장 김남철동무는 먹이풀생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녔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는 정보당 수확고가 2배정도 장성했다고 자랑하였다. 이런 성과를 낳은 비결에 대해 알아보니 우선 대대의 풀판비배관리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었다. 유기질비료를 풀판에 내는 방법이 특이한것이였다.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을 먹이풀생산에서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유기질비료리용에서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았다.

사실 대대에서 먹이풀생산을 시작한 처음에는 정보당 수확고가 그리 높지 못했다.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일군들이 먹이풀을 수확한 후 일부 면적에 진거름물을 주었더니 놀랍게도 다음해 봄에 죽은 먹이풀이 없었을뿐만아니라 그 수확고도 다른데 비해 훨씬 높았다.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토양속의 다량 및 미량원소를 비롯한 영양물질함량이 높아진데 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신심을 가진 이들은 지난해 소대들에서 먹이풀수확을 한 다음 매번 진거름을 물에 되게 풀어서 정보당 5t, 닭배설물을 섞은 물은 1t씩 전면적에 주도록 하였다. 풀판조성당시 너무도 척박하고 온통 돌투성이였던 토양의 특성을 과학한데 기초하여 질소와 린성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펼친 작전이였다.

그 결과는 좋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잎이 푸르러있었던 먹이풀이 올해 봄에는 어느때없이 빨리 되살아나 왕성하게 자랐다. 그러다보니 김이 자랄수가 없었다. 먹이풀의 초기생육이 너무 왕성하여 봄철거름주기도 종전처럼 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봄철김매기와 거름실어내기공정을 거치지 않게 되였다. 그런데다가 죽은 먹이풀이 별로 없다보니 품이 많이 드는 먹이풀씨덧파종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야말로 일거다득하게 되였다.

먹이풀이 예상외로 빨리 자라 그 수확기도 앞당겨졌다. 지난해에는 7월에 1차, 10월에 2차수확을 했지만 이번에는 6월과 8월에 두차례의 수확을 하게 되였다. 이렇게 수확기가 앞당겨지다보니 일부 면적에서는 8월에 3차수확까지 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먹이풀생육이 왕성해지게 된데는 다른 사연도 있었다.

언제인가 일군들은 과학자들로부터 카리비료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험을 통해 그것을 확증한 이들은 지난 5월초 풀판에 골을 째고 카리성분이 들어있는 데용비료를 묻어주었다. 그것이 수확기를 앞당기는데 큰 작용을 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 최고생산기록을 돌파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밑에 먹이풀수확을 한 후에는 김매기를 하고 한해 묵인 질좋은 풀거름을 골에 깐 다음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거름물과 닭배설물을 탄 물을 주었다. 이렇게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높여주니 가물피해도 극복할수 있었다.

80여정보의 자연풀판비배관리를 하면서 16정보의 인공풀판을 이렇게 가꾸자니 이들에게도 힘든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대대정치지도원 김명철동무는 선렬들의 넋이 깃든 이 땅을 심장에 품어안고 최대의 애국헌신성을 발휘할 때 최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고무해주었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닭은 물론 비둘기까지 많이 기르면서 린성분이 있는 그 배설물가루도 리용하여 먹이풀의 생육을 높여주기 위해 애썼다.

오직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일할 때 반드시 성공한다는 이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그 신념이 올해 전면적에서 먹이풀 3차수확까지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우량품종집짐승을 늘일수 있는 담보 마련

농업과학원돌격대에서

과학축산을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새 품종육종과 우량한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도 과학입니다.》

세포등판에 현대적인 세관동결정액생산기지가 건설된다.

여기에는 인공수정을 위해 채정한 우량품종의 정액을 동결정액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들이 꾸려지게 된다. 채정한 정액이 쓸수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를 활성분석을 통해 판별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관 즉 미세한 관에 이것을 주입하고 얼구어 액체질소보관통에 보존하는데 필요한 공정들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조건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게 된다.

이 기지가 건설되면 우선 세포지구에 우량한 풀먹는집짐승들을 빠른 기간에 대량적으로 퍼칠수 있다.

소인 경우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종자수소 한마리가 한해에 수십마리의 암소와 씨붙임을 할수 있다. 그러나 세관동결정액은 같은 기간에 수천마리지어 만마리이상의 암소에게 주입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량품종의 세관동결정액을 리용하면 짧은 기간에 재래종에 비해 고기와 젖생산성이 높은 우량한 풀먹는집짐승들을 수많이 퍼칠수 있다.

세관동결정액생산기지건설은 비단 세포지구만이 아니라 전국적범위에서 우량한 집짐승육종사업을 통일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는데서도 의의가 크다.

집짐승육종체계에 맞게 지역별로 선정된 종자집짐승의 동결정액을 공급하여 육종사업을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특히 우량한 집짐승의 유전자원을 여기에 오래동안 보존할수 있어 나라의 축산업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게 된다. 이 기지가 건설되면 종자집짐승의 먹이문제해결과 수의방역사업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다.

인공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자수소의 마리수가 많아야 한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수소 한마리는 한해에 수십t의 먹이풀과 적지 않은 알곡먹이를 소비한다고 한다. 그런 조건에서 동결정액을 리용하면 수소마리수를 대폭 줄이는것과 동시에 많은 량의 먹이와 사양관리로력을 절약할수 있다. 또한 동결정액보존통을 가지고다니면서 인공수정을 하므로 종자집짐승이 전염병에 걸리는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서도 좋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중앙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해결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동결정액생산기지건설을 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하고있다.

건설을 맡은 농업과학원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대상건설이 아니라 당이 밝혀준 축산업발전의 활로인 과학축산의 토대를 튼튼히 쌓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건물들의 기초파기를 한주일동안에 해제낀 그 기세로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건물들의 벽체쌓기를 짧은 기간에 불이 번쩍 나게 끝낸 이들은 골조공사를 마지막단계에서 진행하고있다.

한달 남짓한 기간에 공사과제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한 이들은 건설을 당의 사상관철전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평안남도려단에서 —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라선시려단에서 —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

각지 농촌들에서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의 생활력 과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려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축복속에 첫 청년분조가 태여난 때로부터 39년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에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사회주의농촌에 집단적으로 진출하여 용솟음치는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돌격대, 기수로 자랑떨쳐왔다.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이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며 청춘시절을 값높이 빛내여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사회주의농촌진지의 핵심으로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의 열풍속에 수많은 청년들이 3대혁명수행과 주체농법관철의 앞장에서 내달리며 사회주의농촌진지의 핵심으로 억세게 자라났다.

주체66(1977)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주시 상서협동농장에 집단진출한 신안주녀자고등중학교(당시) 졸업생들의 소행에 대하여 보고받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무성한 숲을 펼칠 싹으로 귀중히 여기시고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감사가 전달되던 그날 안주땅 새 세대들의 가슴에는 하늘같은 이 믿음에 기어이 보답할 일념이 끝없이 소용돌이쳤다.

그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에 온 나라에 전해져 방방곡곡이 감격과 환희로 끓었다. 사회주의협동벌로 수많은 청년들이 달려나갈것을 결의해나섰다.

이 시대적흐름속에서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조직은 새로운 대중적혁신운동의 탄생이라는 력사적사변을 펼치였다.

농촌청년분조원, 청년작업반원들을 사회주의농촌진지의 핵심으로 억세게 키우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끝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구지풀에 뿌리내린 양덕군 온하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이 첫해농사를 잘 지은 기쁨을 안고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크나큰 믿음이 담긴 회답편지를 보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못다 준 사랑이 있으신듯 온하리의 단발머리청년분조원을 국가적인 대회 대표로 불러주시였으며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 말 그대로 청년분조원들이 돌우에 충정의 꽃을 피웠다고 하시며 온 나라 농장원들이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 대회에 참가한 청년분조원의 토론이 앞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것이라고 하시면서 온하협동농장 청년분조를 전국에 내세워주시였다.

그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안고 새 세대 청년분조원들은 어렵고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며 해마다 풍작을 안아왔다. 그 나날에 양덕군 온하리의 청년분조장은 한개 농장을 책임진 관리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났다.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의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차게 타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려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 운동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여 농촌청년들의 혁명적열정을 북돋아주시였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1990년대 중엽 전국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열성자대회를 조직하도록 하여주시고 로력적위훈을 세운 대회참가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을 떼여놓고 농촌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가는 청춘들의 높뛰는 기상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청년분조원들이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사일에 청춘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고, 그들이 장군님을 몹시 뵙고싶어한다는 한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덤비며 달려와 뒤쪽에 선 녀성청년분조원들이 작은 키때문에 자기들의 얼굴이 가리워지는것을 속상해하며 저마끔 키를 솟구느라 야단이였다. 그들의 속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청년분조원들이 뒤줄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가리워져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을수 있으므로 자신의 앞에 나와앉으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분조원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사랑의 축복이였으며 그이께서 내여주신 앞자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가라는 크나큰 믿음과 당부가 어린 영원한 혁명의 앞자리였다.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난 기간 수많은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고 로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과 농업부문의 일군으로 자라나 사회주의농촌진지는 더더욱 굳건해질수 있었다.

당의 농업정책관철의 돌격대로

오늘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인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을 체질화하고 전세대들의 뒤를 이어 농업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청년전위들의 억센 기상을 과시하며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지금 각지 농촌들에는 2 000여개의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이 조직되여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돌격대, 기수로 자랑떨치고 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준 우리 당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고무된 온 나라의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은 더 높은 농업생산성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갈 열의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이 뚜렷한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지난해만도 각지 청년분조, 청년작업반들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많은 애국미를 바치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정보당 10t이상의 논벼를 무조건 생산하기 위해 잡도리부터 단단히 하였다. 지력이자 알곡증산이라는것을 명심한 이들은 그전에는 엄두도 못내던 정보당 40t의 유기질비료를 포전마다에 실어냈다. 그리고 대담하게 큰모재배방법을 전면적에 받아들여 농사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논벼를 정보당 10t이상 생산하였으며 많은 애국미를 바치였다.

언제나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백두의 칼바람에 몸을 담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려는 백옥같은 충정과 절대불변의 의지를 안고 이들은 올해에도 흐뭇한 작황을 마련해가고있다.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도 지난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많은 애국미를 바친 기쁨을 안고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한 이곳 청년분조원들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당의 호소를 심장에 쪼아박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곧바로의 정신으로 이들은 농사일의 그 바쁜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양어장을 훌륭히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각지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은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서나가고있다.

세포등판의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은 위대한 청년강국의 주인공이라는 최상의 영예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뜻대로 세포전역에 하루빨리 집짐승떼 흐르게 하기 위해 그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전국의 수많은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과감히 전개하며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박력있게 내밀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형언할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동지적우애와 집단의 위력으로 곤난을 뚫고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을 체질화한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은 우리 당의 과수정책을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앞장에 섰다.

덕성사과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은 한그루의 과일나무를 가꾸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해마다 과일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동력식분무기를 갖추고 과수작업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서 큰 전진을 이룩한 이들은 올해에도 과일대풍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전국의 수많은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장약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들로 억세게 자라나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과 더불어 지난 기간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고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 업적을 길이 전하며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농업생산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기수, 돌격대의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갈 심장의 맹세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그는 오늘도 진격의 나팔수로 살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였던 안재명동무

지난 6월 22일이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이며 평성사범대학 력사학부 력사강좌장이였던 안재명동무는 이른아침부터 심한 머리아픔으로 몸을 지탱하기 힘들었지만 안해의 부축을 받아가며 길을 떠났다. 평성시 문화초급중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고있는 대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여느때같으면 20분이면 가닿을 거리였지만 그날은 한시간나마 걸렸다. 학생들의 실습교수준비정형을 료해하고 부족점을 바로잡아준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온몸이 나른해지고 말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여 탄광들에 나가 진행할 강연제강을 완성하기 위한 집필에 달라붙었다. 점차 의식이 흐려졌다. 혼미해지는 의식속에서 안해의 손을 꼭 잡은 그는 최후의 기력을 모아 말했다.

《여보,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한번만이라도 더 뵙고싶소.》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말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실 우리 당선전일군들과 교양원, 강연망, 선동망에 망라되여있는 초급선전일군들의 력량이 대단합니다.》

직외강연강사로 첫걸음을 내짚은 때로부터 19년, 당의 믿음을 한생의 재부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열렬한 충정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비상한 정열과 탐구심, 뛰어난 실력으로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관철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강연선전활동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친 안재명동무의 삶은 당초급선전일군들이 당의 사상사업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고 있다.

꺼지지 않는 홰불, 우렁찬 나팔수

사회주의수호전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꺼지지 않는 홰불, 우렁찬 나팔수.

이것은 안재명동무에 대한 대중의 평가이다.

그의 강연에서 특징적인것은 그 어떤 주제이건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선전을 중핵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그 실효를 최대로 높인것이다.

몇해전 어느 한 탄광에서 이관문제가 제기되자 실적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탄부들의 생활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해당 일군들도 이렇다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이 문제를 강연선전으로 풀것을 결심한 도당위원회는 그 과업을 직외강연강사인 그에게 맡겨주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겠는가.

이 한가지 생각에 잠겨있던 그에게 퍼뜩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나간다면 막힌것도 모를것도 없을것이며 우리 당사상사업이 그대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밑불이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였다. 한자한자 새겨볼수록 그의 뇌리에서는 섬광같은 착상이 번쩍 하였다. 눈앞이 확 트이였다. 그는 지난 시기 짬짬이 마련해놓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교양자료들을 보면서 탄부들의 마음을 틀어잡을수 있는 종자탐구에 달라붙었다. 사색에 사색을 이어가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종자를 잡고 출연제강을 집필해나갔다. 회고록의 갈피를 뜨거운 눈물속에 번져가면서 완성한 그의 강연은 대번에 청강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강연이 끝나자 앞을 다투어 연단에 나온 탄부들은 잠시나마 탄부의 자각을 잊고 살번 했다고 하면서 석탄증산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들은 석탄생산실적을 그 전해에 비하여 2배로 끌어올림으로써 자기들의 결의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체험을 통해 모든 강연제강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교양자료를 반영하고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법을 찾아내여 강연을 실감있게 한다면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확신한 그는 주동적으로 이 사업을 더욱 적극 스럽게 밀고나갔다.

교육자인 그에게서 제일 부족한것은 시간이였다. 하지만 그는 강의가 끝나면 새벽 2시가 넘도록 위대성도서들을 자자구구 학습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자료화하기 위한 사업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일별, 주별, 월별로 카드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루도 번지지 않고 해나갔다.

그에게는 여러해동안 굳어진 일과가 있다. 매일 아침보도를 정상적으로 듣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이 나오면 즉시에 그 내용을 강연에 반영하는것이다. 이런 일과는 집중강연선전대에 망라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나가있을 때에도 례외가 되지 않았다. 그는 매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집중강연선전대에 망라된 직외강연강사들에게 알려주어 강연에 반영되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 어느 부문을 현지지도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였다는 내용으로 시작된 그의 강연은 첫시작부터 청강자들의 마음을 틀어잡군 하였다.

그는 강연을 듣고 격정을 터치는 청강자들을 볼 때가 제일 기뻤다.

강연도 전투이다

안재명동무는 강연강사의 임무가 대중앞에 나서서 당정책을 해설해주는데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강연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고 보았다. 하기에 그는 강연 한건한건을 당이 준 전투임무로 여기고 무겁게 대하였다.

학위학직소유자인 그는 전국적인 교수경연에서 여러차례 1등의 영예를 지닌 쟁쟁한 실력가였지만 강연제강을 맡으면 언제나 학생이 된 심정으로 글줄을 따져가며 깊이 연구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첨부하여 출연제강을 만든 다음에야 연탁에 나서군 하였다.

언제인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신천대학살만행을 폭로하는 강연제강을 맡았을 때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강령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자료를 첨부하였지만 강연의 실효를 높일수 있다고 본 그는 도계급교양관과 신천계급교양관 자료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데 기초하여 출연제강을 다듬은 다음에 연탁에 나섰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 성천군 삭창리의 한 농민일가가 계급적원쑤들에게 환상을 가지였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원쑤놈들에게 죽게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첨부하여 진행한 그의 강연이 청강자들에게 주는 여운은 컸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저저마다 그의 손목을 잡고 정말 좋은 강연을 들었다고, 강사동무가 자기들을 다시한번 각성시켜주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에게는 십여년동안 굳어진 습벽이 있다. 강연내용을 후열해보면서 잘못된것이 없는가를 스스로 총화하는것이다.

그는 강연을 한 날에는 의례히 안해와 함께 퇴근길에 올랐다. 그날 강연에서 잘못된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에 대한 이런 높은 요구성은 그로 하여금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 정황에 맞는 독특한 강연형식과 방법을 낳게 한 원천이였다.

평성사범대학 력사학부 력사강좌장 안재명 하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지만 도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 안재명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그의 강연을 사람들은 무척 듣기 좋아했다. 그가 어느 공장이나 협동농장에 강연을 나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군 하였다.

뛰어난 언변술과 류창한 목소리를 겸비한 그가 노래도 부르고 성구와 속담까지 섞어가며 강연을 할 때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를 두고 강연강사의 기질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천성이기 전에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에 기초한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였다.

그에게는 창조의 숨결높은 드넓은 전투현장이 곧 강연마당이였다.

안재명동무와 그의 안해 김성옥동무는 온 대학이 자랑하는 부부교원이였다. 가정형편도 넉넉치 못했지만 그들은 강연선전대에 망라되여 탄광이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갈 때면 언제나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를 가지고나가는것을 잊지 않았다.

70일전투가 고조되고있던 지난 4월에도 그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 3갱에 입갱하여 가정에서 준비한 장갑과 식료품들을 넘겨주고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석탄폭포로 7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는 내용의 화선식강연선전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김책청년돌격대에 찾아가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정의 한길을 걷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렇게 그는 지난 19년간 3 200여차에 걸쳐 연 60여만명을 대상으로 강연선전활동을 벌려오는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여러차례 기쁨을 드리였으며 몇해전에는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200일전투에 들어서면서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그는 지난 시기보다 더 불같이 살았다. 2.8직동청년탄광과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숙천군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나가 당 제7차대회 보고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강연선전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지난 6월 그가 어느 한 탄광에 집중경제선동을 나갈 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도인민병원의 한 의사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하다고 막아나섰다. 그는 병색이 짙은 얼굴에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선생님, 더 막지 말아주십시오. 200일전투에서 내가 설자리는 전투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투가 끝나면 마음껏 치료를 받겠으니 안심하십시오.》

언제나 제 한몸을 돌보지 않고 공장과 농촌을 수없이 다니며 집중강연선전활동을 벌려온 그이였다.

그가 한번쯤 빠졌다고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강연도 전투이며 전사는 순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숭고한 자각이 그로 하여금 병원으로가 아니라 탄광으로 나가게 하였던것이다. 이렇게 그는 모진 아픔을 이겨내며 하루도 아닌 수십일이나 도안의 여러 탄광들을 다니면서 대중을 200일전투에로 불러일으켰다.

강연도 전투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였다.

원칙이 강하고 대바른 참인간

대학에서는 평안남도중등학원을 졸업하고 지난해와 올해에 입학한 여러명의 학생들이 있다.

조선민속학시험을 앞둔 어느날 그가 학부장을 찾아와 학원졸업생들의 학습지도를 맡겠다고 제기해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데서 직외강연강사이며 교육자인 자신이 앞장서는것은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한 그였다. 그때부터 그는 강의가 끝난 저녁시간이면 그들의 학습지도에 달라붙었다. 매 학생들에게 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을 마련해주고 건강이 좋지 못한 학생에게 필요한 약재를 구해주기 위해 하루밤에 수십리길을 다녀오기도 했다. 친부모도 주지 못한 뜨거운 인정미에 의하여 그 학생의 병은 완쾌되였고 그가 맡아안은 학생들은 조선민속학시험에서 모두가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그는 교원은 자기가 배워준 제자들이 사회에 나간 다음에도 제구실을 다할 때까지 책임져야 스승으로 떳떳이 불리워질수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3월이였다. 맹산군에 나가 강연선전활동을 벌리던 그는 어느 한 고급중학교 교원으로 사업하던 한 제자가 졸업생들과 함께 100여리 떨어진 어느 한 협동농장에 진출하여 농업생산에 이바지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모교의 소식을 알려주고 사업과 생활을 잘 하도록 고무해주는 그의 조언은 제자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이렇게 그는 직외강연강사로 사업하는 속에서도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탐구심을 가지고 과학연구사업과 후대교육사업에 이바지하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10여권 집필하였고 여러명의 학위소유자를 키워냈다. 10월 8일모범교수자인 그는 새 교수방법등록증을 비롯한 증서만 하여도 20여건 받았다.

품성이 고지식하고 대바른 그는 당의 교육강령집행을 놓고 흥정할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지난해 11월 학부의 졸업반학생들이 동해지구에 대한 전공실습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준비정형을 알아보던 그는 한 학생이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고 실습에 빠지려고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그 학생의 담임교원에게 알아보니 학생의 부모들의 부탁도 있고해서 조절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표시하는것이였다. 그 담임교원은 안재명동무의 제자였다. 인정이 많은 강좌장으로 알려진 그였지만 이때 그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러니 나에게서 일종의 양보를 바라는거겠소. 당의 교육강령집행을 놓고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서 력사학부의 한 교원은 강좌장선생님은 학생들을 당이 바라는 훌륭한 교육인재로 키우기 위해 밑거름으로 살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그는 27년동안 한 대학에서 교수교양사업을 하고 안해도 교원이였지만 그 어떤 특세를 쓴적이 한번도 없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 이것이 그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였다.

외아들인 성철이가 대학졸업을 앞두었을 때였다. 전과목 최우등생인 그를 두고 대학의 일군들은 박사원에서 공부시켜 부모들의 뒤를 잇게 해주자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조국이 있어야 가정의 행복도 있다고 하면서 그를 인민군대에 내보냈다.

몸은 채소해도 가슴에는 뜨거운 인정미가 철철 넘치는 교육자, 바로 여기에 그의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

※ ※

안재명동무의 가정에 들렸던 우리는 그가 늘 가지고다니였다는 자그마한 수첩을 보게 되였다. 거기에는 그가 사랑하며 즐겨부르던 노래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이 적혀있었다. 그 한편의 노래에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강연선전활동을 벌려온 우리 당의 참된 당초급선전일군의 깨끗한 마음을 읽었다.

그는 47살 한창나이에 우리곁을 떠났다. 우리는 그의 한생을 통하여 겉보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고동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뛰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당초급선전일군의 참모습을 본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사상전선의 제1선에서 온넋과 정열을 바친 이런 당초급선전일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충정의 200일전투의 날과 날이 흐를수록 운전탄광의 석탄생산실적이 계속 높이 뛰여오르고있다. 200일전투 첫달 석탄생산목표를 180%로 넘쳐 수행한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힘찬 생산돌격전을 들이대여 매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혁신의 앞장에 선 굴진공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적극 벌리며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매일 굴진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히 석수가 쏟아지고 암질조건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굴진전투를 중단없이 벌려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이들에게 뒤질세라 채탄공들은 당을 받드는 충정의 높이이자 석탄산의 높이라는것을 자각하고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해제끼며 교대별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박찬웅, 오영철, 림혁동무를 비롯한 탄광의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충정의 200일전투목표를 기한전에 수행할 열의안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정막장에 깊이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탄도 캐고 탄차도 밀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의 빈틈없는 전투조직과 이신작칙은 탄부들의 경쟁열을 북돋아주며 수천척지하막장의 증산열기를 더해주고있다.

충정의 200일전투의 날과 날을 눈부신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불같은 지향으로 하여 석탄산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제12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제12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전람회개막식이 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리룡남내각부총리, 김영재대외경제상, 김인철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경제무역부문 일군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박용식 조선국제전람사 사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오룡철 대외경제성 부상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공동의 발전과 진보를 이룩하려는 의지를 안고 제12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성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지위는 비상히 강화되고있으며 이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전람회가 나라들사이의 친선을 도모하고 다방면적인 경제무역거래와 투자, 과학기술교류를 광범히 벌리는데서 좋은 계기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앞으로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며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와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중국, 타이, 이란, 인도네시아, 윁남, 도이췰란드, 로씨야, 이딸리아, 꾸바,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중국 대만의 회사들에서 출품한 전시품들을 돌아보았다.

전람회는 8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뛰르끼예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차건일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8월 31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간 뛰르끼예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간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뛰르끼예는 조선을 우호적인 나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조선에 대한 공정한 지지와 편대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호상 협력이 잘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민족의 분렬은 비극이다, 조선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것만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면 그이상 더 좋을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북과 남이 서로 화해, 단합하여 통일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후대들을 위한 일에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금야군 새동농장 일군들

지난 4월 1일, 새동고급중학교에서는 군안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 학부형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개교식이 진행되였다.

그날 새 세기의 맛이 나게 새로 일떠선 학교의 안팎을 돌아보며 교직원,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경탄과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보기에도 시원하고 산뜻한감을 주는 지붕으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제를 정중히 모신 중앙현관홀과 밝고 환한 교실들, 실험실들,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 화단들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에 맞는 여러가지 색갈의 물고뿌들과 거울, 옷걸개와 청소도구들…

그 하나하나에는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새동고급중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애써온 농장일군들의 멸사복무정신이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1월 어느날이였다.

새동고급중학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농장초급당위원장 변원상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교사 4동이 수십년전에 건설된 단층건물인데다가 널려져있다보니 교무행정사업은 물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얼마후 농장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학교건설을 위한 문제를 놓고 초급당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소. 학교를 건설할바엔 대담하게 2층으로 된 교사를 새로 건설해줍시다.》

초급당위원장의 호소에 관리위원장 정연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모두가 적극 호응해나섰다. 즉시 학교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분공이 이루어졌다. 변원상동무는 드바쁜 속에서도 읍안의 여러 학교들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학교설계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품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보수분조로력을 기본으로 하는 30여명의 돌격대가 조직되고 학교건설이 시작되였다.

하지만 건설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았다.

농장자체의 힘으로 2 100여㎡의 2층건물을 건설한다는것도 어렵이 큰데다가 당면한 영농작업은 물론 벌려놓은 일감이 많은 조건에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돌격대원들속에 덩지큰 대상을 건설해본 성원들이 없는것은 물론 자재들도 어방없이 모자랐다. 그러다보니 착공한지 거의 한해가 지나갔지만 건설은 별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그무렵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받아안은 변원상동무는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교육사업을 그저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맡아해주는 참된 주인이 되자.)

그때부터 변원상동무는 교육사업을 당일군의 눈길로 새롭게 보고 대하기 시작했다.

바쁜 일들이 밤낮없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그는 늘 현장에 나가 팔을 걷어붙이고 돌격대원들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세멘트와 모래, 혼석, 철근 등 학교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도 따라세우며 목재, 유리를 해결하느라 먼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회의도 늘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건설정형을 총화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집체적지혜를 합쳐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다.

학교건설의 나날에 있은 하많은 이야기들중에는 이런 일도 있다. 학교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 어느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는 건물외장재색갈을 놓고 서로 엇갈린 의견들이 오고갔다. 이때에도 변원상동무는 학생들의 충정과 애국의 마음은 백두산천지물처럼 청신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밝고 환한 미색으로 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다고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였다.

이렇게 되여 지난 3월까지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활동연구실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12개의 교실, 실험실습설비를 그쯘히 갖춘 11개의 실험실들을 포함하여 30여개의 방들이 있는 2 100여㎡의 2층교사가 멋들어지게 일떠서게 되였다.

당조직에서는 학교교사가 훌륭히 일떠선데 맞게 교육설비와 교구비품을 마련해주는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사실 이 농장이라고 해서 다른 단위보다 무엇이 많거나 조건이 특별히 좋은것은 아니다. 문제는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문제이다.

당조직에서는 농장에 긴급한 일감이 아무리 많고 또 자금이 아무리 긴장하여도 교육설비와 교구비품을 마련해주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도록 하였다.

충정의 7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진 지난 3월 학교지원월간에만도 여러대의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존수상기, 태양빛전지판, 발동발전기 등 수십종에 달하는 교구비품을 일식으로 마련하여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농장에서는 수많은 새 책걸상과 함께 학교복도에 5대교양판을 비롯한 직관물 수십점을 게시하여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게 하는 사업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잘 도와주었다.

하기에 우리에게는 학교교원들모두가 한결같이 터치던 이야기가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기 위해 바친 고심어린 탐구, 온 농장이 떨쳐나 학교운동장을 넓고 시원하게 닦아놓고 롱구대를 비롯한 체육기재들도 새로 설치해주었다는 이야기, 교원들의 교육사업과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명절과 계기때마다 고기를 비롯한 버섯 그리고 오이, 쑥갓 등 갖가지 남새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었다는 진실어린 목소리…

참으로 이 나날에 꽃펴난 가지가지의 잊지 못할 사연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오늘도 농장에서는 당이 부른 충정의 200일전투의 날과 날을 위훈으로 새겨가고있는 속에 학교의 콤퓨터망과 국가콤퓨터망을 련결하기 위한 빛섬유케블공사를 끝낸데 이어 2층으로 된 농장유치원건설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우리에게 변원상동무는 말하였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데 이 한몸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다.

이들처럼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떠밀어줄 때 내 조국의 미래는 더욱더 창창해질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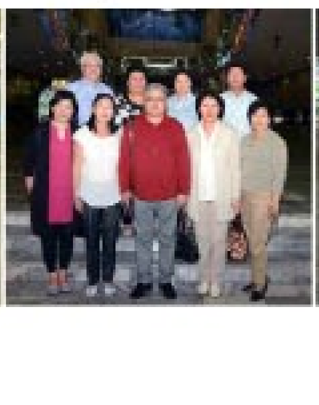
본사기자 윤 명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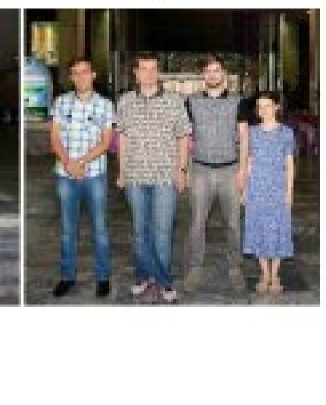
잠비아에 가는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출발

최춘희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잠비아에서 진행되는 국제민주녀성련맹 제16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5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과 일행, 드미트리 포스뻬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즈. 홍보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쑹코리 바로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대표단, 마니크 라마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대표단, 쫑치트 품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프랑스 AFP통신사 사장일행 도착

에마뉘엘 오그 프랑스 AFP통신사 사장과 일행이 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림호룡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과 주조프랑스협조사무소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자위적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나갈것이다

우리의 전략적공격수단개발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세계가 경탄해마지 않고있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 홍풍봉황망은 외신들이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개발능력을 평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도한데 대해 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전략잠수함 탄도탄의 높은 기술적성능이 확증되고 현존개발속도를 유지하는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실전배비가 가능하다는것이다.

《중국청년보》는 서방언론들이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실전수준에 부합되며 기술적으로 매우 성공적이라는것, 시험발사를 통하여 미싸일운반능력과 발사의 기동성, 은폐성, 다원성 등 측면에서 만족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는것이 증명되였다는것, 핵타격능력이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이로 하여 조선의 핵보유결심을 돌려세우기 어렵게 되였다고 한데 대해 전하였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우리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기술적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한 소식도 주목을 끌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5월 우리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사출시험에서 성공하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그것이 새로운 단계 즉 궤도를 따라 목표상공에로 진입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기술을 보유한 몇개 안되는 나라들에서도 잠수함탄도탄의 수중사출시험이후 5~6년후에야 수중발사시험에서 완전히 성공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당시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사출시험성공소식에 접하고 미국의 《트라이든트》미싸일발사장면을 삽입한것이라고 고약하게 놀다가 망신당하였다.

그때로부터 불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을 비행시험단계에 진입시키는 빠른 개발속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번에 또다시 보다 높은 단계의 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강인담대한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도 헌신적인 령도, 과학기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려는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비상한 탐구와 열정이 오늘의 결실을 안아왔다.

지금 미국과 서방의 조선문제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조선의 전략적공격수단개발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일치하게 평가하면서 우리가 보다 높은 성능을 갖춘 전략잠수함 탄도탄을 실전배비하는 경우 미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의 AP통신,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도꾜신붕》 등은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지도하시고 미국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손아귀에 확고히 들어왔다고 말씀하신데 중점을 두고 그이의 이 말씀은 이번 발사에서 성공한 탄도탄에 핵탄두가 탑재되는 경우 미국, 일본이 조선의 핵타격대상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계속하여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은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공격전략과 방어체계를 바꾸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조선반도유사시 대규모무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허다한 군사작전계획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지랄발광해온 미국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공시키자 미국은 우리의 공격수단들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조성된데 대해 몹시 우려하고있다. 특히 탄도탄을 탑재한 잠수함들은 탐지와 추적이 힘들고 그것을 파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남조선은 물론 미국본토와 괌도가 위험에 처할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웨브싸이트는 이렇게 평하였다.

조선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성공하였으며 미국에는 그 실전배비를 저지시킬 방도가 없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조선의 성공은 미국 등에 예견하지 못했던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조선은 대출력고체발동기개발을 완성함으로써 연료주입, 발사준비시간을 훨씬 줄이고 임의의 순간에 로케트를 발사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무력화될수 있다. 《싸드》의 레이다탐지각도가 120°로 제한되여있기때문에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는 전혀 쓸모가 없게 되였다. 수중에서 발사된 탄도탄이 대기권으로 재돌입하면서 높은 속도와 각이한 각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조건에서 《싸드》로 그것을 100% 요격한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최근시기까지만 해도 미국은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면 《철벽의 방어》가 구축되여 남조선주둔 미군을 완벽하게 《보호》할수 있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만것이다. 미국이 《싸드》의 성능에 대해 요란스레 선전했지만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그것은 시험을 통해 완전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방성의 관계인물들도 이에 대해 인정하였다.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을 놓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그처럼 바빠맞아 허둥지둥하고있는것은 이와 관련된다. 그 꼴은 마치 불에 덴 송아지를 방불케 한다.

미국은 유엔에서 추종국가들을 내세워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비난한다, 일본, 남조선괴뢰들과 《억제력강화》를 위한 방도를 모색한다 어쩐다 하며 북닥소동을 피우고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이라는자는 기자회견이라는데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비롯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면서 제재를 리행할것이라느니, 더 많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느니 하고 아부재기를 쳤다.

미국이 안달이 나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승리에 대한 인정으로 된다. 미국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있는 미국이 제재면 모든것이 다 해결되는것처럼 생각하는것자체가 오산이다. 우리는 결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것이 아니다. 미국의 전대미문의 압살과 봉쇄속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실현하였다. 우리가 수십년간에 걸치는 가혹한 제재속에서 오늘의 경지에 올라선것은 력사의 기적이다.

미국이 명심해야 할것은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강화의 길에서 우리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는것이다. 미국의 핵패권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로 되였다. 우리가 틀어쥔 정의의 핵마치는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칠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자중, 자숙할데 대해 이미 충고하였다. 그것을 새겨듣지 않다가는 큰 화를 당할수 있다.

상기시키건대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잠수함들, 전략폭격기편대들을 비롯한 각종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들이밀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왔다.

그뿐인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우리를 고립질식시켜보려고 발악하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걸고들면서 류례없는 제재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우리가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그것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는것은 날로 무분별해지는 미국의 광란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된 미국의 핵위협공갈이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다면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날에 와서까지 날로 더욱 로골화되는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은 우리를 핵무력고도화에로 떠밀어줄뿐이다.

우리는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실천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는 우리의 불변침로이다. 그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자주의 핵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은 만방에 더욱 떨쳐질것이다.

조 택 범

남조선 각계가 격찬

세상에 둘도 없는 우월한 교육제도

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온 나라에 뜨겁게 굽이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한없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고등학교교원 최영무는 일찌기 김일성주석님께서 마련해주신 세계유일의 무료의무교육제도하에서 이북의 학생들은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고있으며 이 우월하고 선진적인 교육시책은 자그마한 흔들림도 없이 시행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한 퇴직교원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이북과 같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나라는 없다, 그런 훌륭한 민중적인 교육제도를 세워주신분은 바로 김일성주석님이시다, 참으로 주석님은 주체교육의 천국을 세워주신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시였다고 칭송하였다.

경상남도 마산의 한 로동자는 《이북에서는 우리와 같은 로동자의 자식들도 현대적설비를 갖춘 학교들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면서 래일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고 열렬히 동경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은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훌륭히 이어져왔다고 하면서 미래학회 회원 리운성은 장군님의 품은 미래를 안아키우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였다고 말하였다.

한 잡지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교육사업과 관련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할 혁명인재육성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인재육성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북의 교육사업에서는 새로운 비약이 일어났다고 썼다.

절세위인들을 끝없이 칭송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은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끼듯이 아이들의 밝은 얼굴에서 절세의 위인들께서 펼쳐오신 민중정치의 우월함을 잘 알수 있다고 한 전라남도 순천시의 녀성과 이북의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정치의 결실이라고 토로한 서울대학교의 교수의 말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후대교육사업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우리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이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차넘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된 소식에 접한 남조선 각계층은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을 지펴주시고 평범한 교원가정도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하면서 온 나라에 교육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우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 참석하시고 훌륭히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며 《자애로운 지도자, 친어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였다고 하면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은 선대수령들의 사랑그대로이다.》, 《가는 곳마다에서 김정은위원장의 후대사랑이 한껏 부각되고있다.》고 언론들은 찬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와대시중군의 푼수없는 망발

얼마전 까자흐스탄에 날아간 괴뢰통일부 장관 홍용표가 또다시 우리를 걸고드는 망동을 부렸다.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자가 제 할바도 모르고 산제밥에 청메뚜기 뛰어들듯 남의 나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코를 들이민 그자체가 주제넘은 노릇이지만 그곳에서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북정책설명회》를 연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 《핵포기》따위를 운운한것은 더욱 역겹기 그지없다. 역도는 얼토당토않은 《북핵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우리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했는가 하면 그 누구의 《핵포기사례가 주는 교훈》이니, 《새로운 기회》니 하고 푼수없이 너덜거리면서 나중에는 《북이 변화》를 보일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고약한 수작을 내뱉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홍용표역도가 이번 해외행각기간 한짓이란 조국통일을 위한것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고 오직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반역적망동뿐이다.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에 미쳐돌아가는 박근혜역도의 가련한 시중군의 잡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홍용표역도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청와대안방주인의 뒤나 씻어주고 그의 비위나 맞추는데 급급해 돌아가는 역겨운 시녀,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로 락인된 인간추물이다. 이자는 북남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민심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입만 벌리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느니, 《총력제재》니 하며 박근혜역도의 대결정책실현의 맨 앞장에서 날뛰고있다. 홍용표가 통일부 장관자리에 올라앉아 한짓이란 류례없는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대화와 협력의 길을 가로막고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해버림으로써 북남협력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놓은것밖에 없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가 홍용표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분렬부 장관같다.》, 《통일부의 존재리유가 무엇인가.》고 야유조소하고있겠는가.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고 제 소굴에서 북남관계파괴와 동족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반통일역적의 더러운 악습이 해외에 나간다고 달라질수는 없는것이다.

홍용표역도가 이번에 북남관계와 하등의 상관도 없는 핵문제를 걸고 우리를 터무니없이 헐뜯으며 《핵포기》니, 《새로운 기회》니 하고 횡설수설한것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것은 력대 최악의 오명을 쓴 대결부 장관의 푼수없는 악담질이다.

조선반도핵문제가 미국의 광란적인 북침핵전쟁도발책동과 그에 적극 추종해온 남조선괴뢰들의 초전적망동의 산물이라는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얼마전에도 미국과 괴뢰패당은 북침핵선제타격을 노린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강력한 단죄규탄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홍용표역도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면서 뚱딴지같이 그 누구의 《핵포기》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그 추태가 얼마나 뻔뻔스러웠는지 홍용표가 《대북정책설명회》라는데서 《핵포기》타령을 늘어놓자 청중들은 북의 핵보유경위를 아는가고 따지고들면서 눈꼴사납게 노는 역도에게 퇴망을 먹였다.

홍용표역도는 제 집안에서는 물론 밖에 나가서까지 동족을 헐뜯으며 반공화국대결광조구걸에 미쳐돌아감으로써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에 백해무익한 암적존재, 민족의 재앙거리로서의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은 안중에도 없이 동족압살에 환장해 날뛰는 이런 대결미치광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다.

괴뢰들에게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북핵포기》를 실현해보겠다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짓은 없다. 박근혜패당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부질없이 놀아댈수록 그것은 저들의 파멸만을 재촉하게 될것이다.

박 철 준

단 평

본전도 못 찾은 광대극

얼마전 괴뢰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긴급기자회견이라는것을 열고 《북의 테로위협에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딸라고 광고하였다. 그에 대해 기자들이 《테로위협징후가 있는가.》고 질문하자 바빠맞은 통일부패거리들은 비지땀을 흘리며 뚱딴지같이 《북테로》설은 있다고 변명해나섰다. 격분한 참가자들속에서는 《통일부가 밑도 끝도 없이 민중을 불안하게 한다.》, 《안보불안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통일부패거리들이 《북테로》설을 류포시켜 높아가는 반《정부》투쟁의 초점을 딴데로 돌려보자던노릇인데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더 붙인 꼴이 되고말았다.

오래가는 거짓이 없다고 괴뢰당국의 기만적인 반공화국모략설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과 《싸드》배치소동, 로동개악과 부정부패 등 각종 반역죄악으로 최악의 통치위기에 빠진 박근혜패당이 그로부터 헤여나기 위해 뚱딴지같이 《북테로》라는 구태의연한 거짓말까지 꾸며가며 민심의 불안을 자아내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이 어찌 분격하지 않겠는가.

없는 재간으로 서툰 모략소동을 벌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박근혜역적패당의 《북테로》광고놀음이야말로 본전도 못 찾은 광대극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괴뢰들은 기만과 날조로 엮어진 모략소동이 밝은 세상에서 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은 정 철

의정부시민단체들

미군기지철수를 요구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1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를 계획대로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미군이 2017년에 반환하기로 하였던 의정부기지에 공격형직승기부대를 배치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로 하여 주민들속에서 반환이 늦어지거나 보류될것이라는 불안감이 커가고있는데 대해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국방부, 미군측이 밀실에서 기지이전문제를 론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그저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하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완강히 전개되는 남조선인민들의 《싸드》반대투쟁

성주군 주민들의 초불투쟁 50여일째 계속, 전지역적인 항거의 불길로 확대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의 《싸드》배치결정에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남조선 각계층을 망라한 전지역적인 투쟁으로 계속 완강히 전개되고있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이 지난 7월 성주군에 《싸드》를 배치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한 때로부터 폭염속에서도 중단없이 이어져온 남조선 각계층의 《싸드》반대투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거세찬 불길로 타오르고있다.

결정이 발표된 후 닷새만인 7월 13일부터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은 성주군청앞에서 50여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대중적인 초불집회를 벌리고있다.

역적패당은 이들의 투쟁을 분렬, 약화시키기 위해 《빨갱이》라느니,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느니 하면서 탄압의 칼을 들이댔다.

최근에는 이미 발표된 곳과는 다른 성주군내 3곳을 《싸드》배치후보지로 여론화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해 핵전쟁장비를 성주군에 함부로 배치하기로 한 미국과 사대매국노무리에 대한 군주민들과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있다.

《싸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를 뭇고 조직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성주군 주민들은 조선반도에 전혀 필요없는 《싸드》가 성주는 물론 남조선의 그 어디에도 배치되지 못하게 하는것이야말로 우리의 력사적책무이다, 《싸드》철회투쟁은 제2의 독립항쟁운동이다고 하면서 역적패당의 온갖 모략과 탄압책동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고있다.

초불투쟁이 시작된지 50일째 된 8월 31일의 집회에는 많은 성주군 주민들과 함께 이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기 위해 부산과 경상남도 창원 등지에서 달려온 각계층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싸드》배치를 강행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하고있는 괴뢰패당의 음흉한 기도들을 폭로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극단의 공연이 진행되였다.

매일 집회의 사회를 맡아보고있는 성주군 농민회장은 더욱 힘을 내여 《싸드》배치반대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신문 《한겨레》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지반으로 되여온 남조선의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 주민들의 초불투쟁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전개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은 인구가 5만명정도밖에 안되는 성주군에서 매일 수천명이 초불집회에 참가하는것은 보기 드문 대규모의 진출이다, 제3의 후보지가 거론되고있지만 집회에 참가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성주군 주민들은 지난 7월 15일 《싸드》배치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괴뢰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한나절이상이나 붙잡아놓고 혼쌀내움으로써 역적패당에게 수치를 안기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들은 재미동포가 미국 백악관홈페지에 개설한 《싸드》반대싸이트에 집단적으로 등록하는 한편 다음기 미국대통령후보들에게도 《싸드》배치의 철회를 위해 노력할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였다.

이들의 과감한 투쟁은 1만명 결의대회, 대규모삭발시위, 서울에서의 항의행동, 다른 지역 인민들과의 공동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장기화, 적극화되고있다.

여기에 합세하여 남조선 각지에서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들이 조직되고 8월 18일에는 민주로총,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녀성단체련합을 비롯한 90개 단체가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을 결성하는 등 성주군 주민들이 지핀 《싸드》반대투쟁의 초불은 온 남녘땅에 반미자주화를 위한 료원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지난 8월 26일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를 비롯한 남조선 58개 지역에서 일제히 《싸드》배치반대 초불투쟁이 전개되였다.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은 9월과 10월에도 투쟁을 계속 진행할것이라는 강경한 립장을 발표하였으며 성주군, 김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 주민들과 련대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괴뢰패당이 제3의 후보지의 하나로 선정한 성주골프장과 린접한 김천시 주민들은 김천시만이 아닌 남조선 그 어디에도 《싸드》가 배치되지 못하게 하는것을 투쟁목표로 확정하고 김천《싸드》반대투쟁위원회의 명칭을 《싸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로 바꾸기로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국민의 당과 정의당뿐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싸드》배치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맞서나갈 태세를 보임으로써 괴뢰패당을 극도의 불안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는 성주군 주민들의 투쟁이 흔들림없다, 그들은 서울 청계천에서 울릉도와 독도까지 《싸드》반대의 목소리를 전파하고있다, 이제 《싸드》철회는 성주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전지역 인민들의 과제가 되였다고 전하였다.

외신들도 성주군을 발화점으로 하여 광범히 전개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싸드》반대투쟁이 결코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행에 타격을 안기고있는 현 《싸드》사태는 지역의 정치정세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서 주목을 끌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인민들 괴뢰국방부앞에서 항의투쟁 전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극악한 범죄자

《저주로운 이 땅에서 더는 살고싶지 않다.》, 《살아있는 그자체가 고통스럽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터치는 울분의 웨침이다.

지금 남조선도처에서는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만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조용히 목숨을 끊는 가슴아픈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실업자들이 남조선의 거리들을 헤매며 몸부림을 치고있고 보수당국의 사대매국정책으로 생존권을 빼앗긴 농민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있다.

박근혜역도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무려 200여가지의 공약들을 광고하며 그 무슨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에 미련을 품은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지지표를 던지였으나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노릇이였다.

온갖 사기와 협잡, 감언리설로 《대통령》자리를 따낸 박근혜역도는 집권초기부터 내가 언제 그랬던가싶게 자기 공약들을 휴지통에 처박고 오히려 반인민적악정을 강화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재벌들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희소리를 치며 그 무슨 《경제민주화》에 대해 떠들던 역도는 《규제는 암》이라는 망발을 줴치면서 재벌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주들이 제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할 권한을 주었는가 하면 《경제활성화》의 간판밑에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강행하여 수많은 로동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켰다. 그로 하여 역도의 집권후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완전실업자가 450여만명으로 늘어났으며 하루 또는 몇개월정도 고용되여 일하면서 얼마 안되는 임금을 받는 반실업자도 800만명에서 1 000만명으로 증가되였다. 비정규직이 나날이 확대되고있는 속에 정규직로동자들도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시달리고있는 형편이다.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기가 막힌다. 자료에 의하면 현 괴뢰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조선에서 20대 청년들의 일자리는 4만여개, 30대 청년들의 일자리는 2만여개나 줄어들었으며 그로 하여 청년실업사태는 그야말로 최악에 이르렀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청년들은 부지기수이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녀성들과 어린이, 장애자, 로인들이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을 받고있으며 련이은 각종 특대형사고와 전염병사태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여 인민들의 원한은 하늘에 닿고있다.

남조선의 근로인민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악몽과 절망의 련속으로 되고있다. 청년들은 사랑, 결혼, 해산, 집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세대》에서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린 《7포세대》로 전락되여 나중에는 삶을 포기하고 자살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 오늘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자살지옥으로 락인되고있다.

이 험악한 사태를 두고 남조선의 한 야당의원은 박근혜《정부》가 한짓이란 오만과 독선, 거짓으로 서민경제를 몰락시키고 자살률 1위, 로인빈곤률 1위, 최저임금 1위, 채무증가률 1위 등 50개 부분에서 남조선이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1위를 차지하게 한것뿐이라고 격분을 터치면서 괴뢰역도를 《거꾸로 가기에 능한 올림픽선수권보유자》라고 야유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무례무능과 반인민적악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남조선사회를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의 무덤으로 만든 박근혜역도를 온 남녘인민들이 저주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짱그리 짓밟히는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을 두고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불행시대》, 《국민절망시대》라고 절규하면서 자신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반역《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최근 남조선도처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반《정부》투쟁들은 반역통치배들에 의해 짓밟힌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고 참다운 삶을 누리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의 뚜렷한 과시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천만번 정당하며 그들의 대중적항거는 반역《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영 국

ㄱ-61143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방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